

佛敎의 經濟觀

金 素 荷

一

古스의 唯物主義가 全世界를 風靡하게 된 것이다. 現代의 新人으로 所謂 思想을 論하며 主義를 論하는 者는 一도 唯物主義로 二도 唯物主義인 것이다. 그 中으로 現代人의 大部分은 唯物病에 中毒이 되어서 失神發狂悲鳴의 極에 達한 것이다. 如此한 衆生은 아 모리 精神治療를 說하고 菩薩道를 論하며 佛道를 論하드려도 強剛難化에 屬한 無緣衆生이라고 하니 할 수가 없다. 그런 까닭으로 그 佛을 爲하여 從淺至深의 法門을 說함에 第一은 저 佛敎의 經濟思想 佛敎의 物質主義를 說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리라 고 생각하 고 佛敎의 經濟觀을 論하리라 한다.

釋尊께서 見性成道하시니 佛陀라는 偉大人格을 이루시니 三界에 導師가 되시고 四生에 慈父가 되시었

습은 寶言을 必要가 없거나와 釋尊께서 佛陀가 되 시었다 함은 決코 人界를 越한 것을 가르침이 아니라 生死를 超越하고 世間을 超越하시었다 함은 悟道生活 의 自由自在한 境界가 그러하다는 釋尊의 心境을 說하심 것이요 決코 世間을 弄지고 他界로 向함을 云함 은 아니다. 佛陀께서는 어디까지든지 人間世界에 住하시었다. 그럼으로 成佛하시실 때를 當하여 衣食 住에 對하신 考察이 甚심도 當然한 일이다. 그러면 佛敎의 經濟의 內容은 如何한가 從來의 佛敎學者는 此 經濟의 內容을 도라 보지 아니하였으나 現代의 佛敎 學者로서는 此 問題를 甚히 研究할 必要가 있다고 생 각한다.

佛陀의 經濟의 思想은 亦是 無常無我의 緣起法에 一

二

致하여 敎訓하시었다. 財寶는 無常한 것이다. 따라 서 無我한 것이다. 此를 永劫에 常住의 도를 維持할 是 不可能한 일이다. 財寶의 性質이 常住를 確實性을 갖 지 아니하였다. 財寶는 剎那도 生滅變化하여야 한다. 財寶物價가 恒常流動變化하여 平常한 消息을 보지 거니 하물며 水火諸難이 있거니 凡有一切의 動不動 財寶를 漂蕩燒盡함이랴? 적어도 이러한 觀察을 할 入자가 되면 我等은 財寶에 對하여 染着性을 버리지 아니하면 아니 될 수 있다.

財寶는 無我인 동시에 無我所한 것이다. 財寶當體 에 何等의 本質의 實在가 업는 동시에 此等을 所有할 個性도 없다. 釋尊께서는 法句經에 『임의 내가 업거나 어찌財가 있스며 어찌子가 있스리오』 하시었다. 此 는 永久하게我等이 있지 못할 法語이며 眞理라고 하겠 다. 設使어떠한 富豪가 있거니 百萬의 殘財를 萬年後 에까지 傳하라고 努力한다 할지라도 그는 迷妄에 墜하지 못할 수 있다. 財寶의 私有繼承은 決코 永代를 期할 수는 없는 일이다. 劫火가 忽起하면 數十代를 거를하여 善積한 錢財도 一朝에 烏有로 化하지 아니 하는가. 由此觀之하면 財寶는 無常한 것이며 無我

한 것이며 無我所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財寶는 緣起의 緣起를 觀察하는 者가 아니면 아니 되나니 오즉 佛陀를 奉養한 佛子라야 財寶의 緣起性을 看破하게 될 緣이다. 財寶는 참으로 因緣生이다. 그럼으로 財는 그由來한 因緣이 있다. 日常生活에 업서서 는 아니 될 尊貴한 財寶가 있게 됨은 그가운데 多大한 勞力이 감추어 잇습을 觀察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런 까닭 으로 釋尊께서는 財寶가 無常無我한 것을 看破하신 同時에 一粒의 飯과 一滴水의 藥이라도 그가운데 農夫의 百苦가 감추어 잇습을 發見하시었고 感謝와 敬虔한 생각으로 來處를 冥想하시었다. 財寶의 緣起를 觀察하는 者는 財寶가 由來한 社會衆生의 恩德을 感謝하는 법이니 그것은 自己가 財物을 享用함은 自己의 힘이나니요 衆生力에 依한 財食을 頂戴하는 까닭이다. 이리케 觀察하여야만 一切財寶에 對한 恭敬尊重의 思想이 생기고 또한 一切錢財의 社會性을 得見하게 되며 『量彼來處 付己德行』의 經濟道德을 體達케 될 것이다.

三

如此無常無我緣起의 觀察에 依하여 財는 限이 없
 시을 주인다. 『量을 知得하고 食하는 者의 財 亦
 貯蓄의 必要가 있스리오』 한 것이 原始佛敎團의 標語
 인바와가치 그들의 財는 何等의 貯蓄이 없었다. 淸
 空에 나가는 小鳥가 아모것도 도라보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날으는 鳥와가치 그들은 三衣一鉢外에 何
 等의 貯蓄이 없었다. 그들은 衣食住를 量을 아파서 取
 하였다. 그럼으로 그들은 無所有였스며 無一物이 없
 다. 私有觀念이 타온가 常住觀念은 毫毛라도 갖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財는 各는 各마다 供養이
 있었다. 住宅이 있스며 衣服이 있었다. 그럼으로 그
 들은 財寶가 있스면 享受하기를 그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量을 아파서 取하는 故로 貯蓄할 생각이 없스
 며 平等하게 分配施與하여 人天이 普同供養하기를
 目的하였다. 佛敎의 平等分配 普同供養의 思想의 原
 理는 이곳에 있다. 支那叢林이 타온지 朝鮮寺院에 있
 서서 巨萬의 齋供佛供이 있셔도 어느 一人이 私食하
 지 아니하고 普同供養하며 平等布施함은 이러한

가림이라 하겠다. 原始敎團의 그들은 食時를 마추어
 서 一日의 午前中에 鉢盂를 左手에 들고 舍衛城이
 나 王舍城에 나타나서 貧富貴賤을 가리지 아니하고
 次第로 乞食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量
 을 아파서 取하는 故로 食을 乞하되 飢渴을 慰함에
 足하였스며 衣를 乞하되 糞衣汚布不用物에 限하였
 스며 其外에는 아모것도 取하지 아니하였다. 鉢盂中
 에도 餘食이 있스면 隣人의 財를 分與하고 道傍의
 魚魚의 財까지도 此를 分施하였다. 그러나 現今僧侶
 의 生活을 볼 수 있거든 支那朝鮮 日本을 勿論하고 言
 語道斷의 境에 이르렀다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僧侶
 로써 邸宅이 있고 私財가 있고 妻妾이 있스면 世紀
 末의 奇現象이라고 받게 될 수가 없다. 그러나 方袍圓頂
 의 形姿만이 僧侶가 아닌 故로 吾人은 歎息할 必要도 업
 시생각하지 아니와 이런 中에도 原始敎團과 같은 眞僧
 이 出現하기를 바랄 뿐이다.

四

그러면 眞僧은 어떠한 것인가 法界의 緣起를 觀察하
 는 財寶의 緣起를 觀察하는 者가 眞僧일 수 있나 無所有無

一物의 生活하는 者일 수 있다. 法이 있는 곳에 衣食이
 있스며 道가 있는 곳에 衣食이 있나니 『道心에 衣食이
 있다』는 말이든지 『道學比丘에 諸天이 與衣食이다』
 같은 此中消息을 說明한 것 같다. 眞僧의 生活은 眞
 하지 아니하며 願하지 아니하며 求하지 아니하며 貯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不食不願不求不貯하는 眞
 僧의 生活에는 人天이 다르며 衣食을 供養한다. 此에
 反하여 衣食만을 求하여 財欲만을 求하여 從朝至
 暮로 毒荷荷汲汲하는 者의 財는 幾多의 失敗와 悲嘆만
 이므로 財가 되며 甚함에 이르러서는 財寶의 奴隸가 되
 며 그 財를 因하여 非命의 橫死까지 遂하게 된다. 財
 寶는 固定의 常住의 物이 아니요 循環不息하는 無常의
 無我的 物質인 지라 財物에 緣起를 보고 四方에 散財
 眞捨함을 조야하는 者의 財는 다시 四方의 財寶는 그
 의 財供養하기를 마지 아니한다. 그럼으로 財寶를 잘
 運用하는 者는 社會에 供養하고 다시 社會에 頂戴
 하며 또 다시 社會에 供養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法이다
 眞僧의 生活은 아예 가지르지 應供의 生活이며 無
 願無執不染不貪의 緣起無我的 生活이다. 貯蓄을 떠나
 서 小欲知足으로써 社會供養을 爲하는 者의 財는

衣食이 그물과를 썩어나다 有時에는 巨金大財가
 려서 그의 財善을 活用하기를 強請할 때까지 있다.
 無所有無一物의 托鉢生活 無報酬勞働奉仕의 乞食生
 活을 目的하는 京都一燈園 西田天香氏의 財는 宜光
 社라는 財團이라 하며 一生을 無貪無欲의 貧民救濟會
 民傳道에 實踐하는 東京本所區基督產業青年會 賀川豐
 彦氏의 財는 內外國을 勿論하고 巨萬金의 後援이 있
 다. 그런데 아니라 우리 朝鮮敎界의 水月, 慧月, 寒岩 諸
 師의 生活을 보든지 白龍城禪師의 生活과 事業을 보드래
 도 明若觀火한 일이다.

五

法의 緣起를 觀察하는 者 財寶의 緣起를 觀察하는 者
 는 그의 衣食을 四方社會에 信賴한다. 僧團의 三寶物
 은 이와 같은 信賴의 形式이다. 三寶物은 私物이 아
 니기 때문에 常住物이며 永代物이다. 三寶物은 無我
 所의 對象이기 때문에 더욱 더욱 増上하여 無盡物이
 되며 法界供養 十方無遮大會는 이것으로써 活用
 하게 된다. 우리 朝鮮寺院의 財寶는 이러한 三寶物常
 住物이기 때문에 千有年을 傳하고도 오히려 남아 있

